

푸른빛이 감도는 암회색 벽감에 붉은 옷을 입은 예언자가 서 있다. 육각형 좌대에 새겨진 글자는 '예언자 예레미아'. 일찍이 야훼가 그의 입술에 손을 대며 예언의 능력을 부여했다.

베냐민의 예언자가 파란 가죽장정을 입힌 책을 펼쳐들었다. 그의 시선이 책갈피를 더듬는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궤절을 꾸짖고 타이르는 야훼의 속마음을 더듬는다. 예언자는 벽감 속의 조각상을 들어내고 스스로 좌대 위에 올라섰다. 예언자는 홀로 서서 오른쪽 벽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의 무거운 그림자는 평면과 조형의 경계를 구분함으로써 조형의 실물감을 설득하는 수단이다. 화가가 빛의 그림자에서 색과 형태를 부려내듯 예언자는 자신의 입술로 빛의 존재를 증언한다. 뒷벽에 쳐둔 못에 손때 묻은 필통이 매달렸다.

사과가 환기시키는 원죄의식

성자의 머리 위로 나무 선반이 가로 걸렸다. 선반이 연출하는 정물 풍경은 한점의 어엿한 독립화로 봐도 손색이 없다. 정물의 한복판에 책의 무리가 웅성댄다. 제단화나 경배화로부터 바야흐로 자유로운 신분을 주장하는 참이다. 위 아래로 겹쳐 쌓은 두터운 책들이 저마다 흥중에 담아둔 말씀을 웅얼댄다. 붉은 보자기에 싸서 주둥이를 묶어둔 책과 검은 책가방 속에 챙겨둔 책들은 예언자의 고단한 발길을 따라서 이 세상 어디든지 동행할 마음의 벗들이다.

선반 왼쪽 구석에 붉은 사과가 놓였다. 책장을 넘기다가 입이 궁금할 때 집어먹는 간식거리일까? 단순한 과일정물이나 식탁정물에 올려진 사과라면 그렇게 봐도 좋다. 그러나 제단화에 등장하는 사과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의 저주스런 기억을 일깨우게 마련이다. 그리고 원죄의 구속을 풀어낸 두번째 아담의 향기로운 희생을 빚낸다. 한알의 정물소재가 이처럼 세상의 미각과 구원사의 미스터리 사이를 배회하는 것은 15세기 북구 미술의 전통에서 드물지 않다. 아담을 예수의 구약적 예형으로 읽는 신학적 근거로는 선악과나무를 켜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역사의 입술을 빌려 기적을 증언하다

액스의 수태고지 마이스터가 그린 <예언자 예레미아>

노성두 | 미술평론가



1442~1445년, 152x86cm, 왕립예술박물관, 브뤼셀

찢다고 봤던 제노바 주교 야코부스, 그리고 대지가 아직 처녀성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흙에서 아담이 난 것처럼 예수도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다는 성 암브로시우스의 주장이 자주 인용됐다.

선반 오른쪽 구석의 동그란 상자는 스크리니움 데이타티스, 곧 신성의 흔적을 담아서 보관하는 성 유물함이다. 그러나 식탁 정물로 자리를 옮기면 영판 다른 의미를 담아서 보관하게 될 것이다.

책을 옆구리에 끼거나 두 손으로 펼쳐든 기독교 예언자의 도상은 음송하는 시인이나 웅변하는 연사를 재현했던 고대의 이교적 조형을 은밀한 모범으로 삼는다. 만약 좌대에 올라선 예레미아

와 나란히 베르길리우스나 데모스테네스를 곁에 세워둔다면 오래 사귄 친구처럼 어울릴 것이다. 그가 퍼든 책이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신적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예언자와 사과가 함께 놓인 까닭은?

예언자는 고대 풍의 토가투스 대신에 성직자의 붉은 겹옷을 걸쳤다. 그러나 푸른색 속감에는 기독교 성자와 어울리지 않는 필리그란 문양이 섬세하다. 예언자의 생김새와 표정도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저주를 뱉어내는 예레미아의 관례적 재현과 거리가 멀다. 화가는 1442년 제단화의 오른쪽 날개를 그리면서 주문자 피에르 코르피치의 초상을 예언자의 얼굴에다 옮겨뒀다. 역사의 입술을 빌려서 <성서>의 기적을 증언했다. 이로써 성서화와 역사화의 경계가 범람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액스의 수태고지 마이스터는 그의 붓을 휘둘러 교회 건축의 한쪽 벽을 파냈다. 제단화의 배경 금박을 벗겨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가는 사각형 벽감 안에 살아 있는 예언자를 세워뒀다. 또 무지개 머리를 엮어서 만든 알뜰한 공간에다 나무 선반을 걸쳐뒀다. <성서>와 역사의 주인공을 바꿔치고, 고대의 조형이 걸쳤던 옷을 벗겨서 갈아 입히고, 제단화에서 정물화를 따로 챙겨서 선반에 올려뒀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베물었고 아기 예수가 고사리 손에 쥐었던 붉은 사과를 책들과 함께 끌어든 것은 미술의 역사에서 드문 일이다. 천사와 구름을 거둬들이고 책 정물을 예언자의 머리 위에 띄워둔 것도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